

인종적 정의 및 인종 경계를 넘어서 결속 결의안

이 국가가 설립된 시점부터, 부유한 상류층과 기업들은 인종에 따라 계급을 세우고 유지하면서 그들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. 이 계급은 새로운 국가의 민주주의와 경제의 규칙을 조작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흑인, 갈색, 아시아계 및 태평양 제도, 라틴계, 원주민, 그리고 백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분열시켰습니다.

수백 년 간 흑인과 원주민 사람들을 향한 잔인한 대우와 지배는 부인할 수 없는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. 이 유산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장기간병 근로자들과 우리의 사회적 기여를 과소평가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.

SEIU 로컬 2015의 유산은 전통적으로 노예 흑인 여성이 수행했던 기본 근로자의 권리 자격이 없는 “가정적인” 직업을 유지했습니다.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의 건국의 어머니와 다른 여성들과 동일한 처치에 있는 남성들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그들의 일을 불평등하다고 지목하고 우리의 노동법에 성문화한 인종차별을 직면했고 - 첫 번째 자택 간병 노동조합을 형성했으며 - 다른 수천명의 자택간병 제공자들이 SEIU에 가입하여 그들이 매일같이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여성들의 역사에 존재합니다.

2020 컨벤션에서, SEIU 로컬 2015 회원들은 인종차별 - 반대 조직이 되는 것과,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연속적인 단계들의 개요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
우리가 간병의 미래를 이끌어가면서, 우리는 인종적 정의에 대한 외부 활동과 인종차별-반대 조직이 되기 위한 우리의 내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깊은 인종 경계를 넘어서 결속을 앞으로 3년 간 다음과 같이 조성하고자 합니다:

- 적극적으로 우리 캠페인에 인종적 정의를 경제적, 정치적, 성별인식, 언어, 및 문화적 정의와 연결시킴
- 우리의 노동조합과 세계에 공평을 형성함
- 유색인종에게 공정한 힘-공유를 지원함
- 인종 및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 노동조합의 일부인 모두에게 권한 부여를 함으로써 인종차별에 도전하고 정책, 절차 및 관행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우리의 해당하는 주장을 알고 책임을 갖도록 함
- 우리는 하나가 달성되지 않고 다른 하나가 달성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인종적 및 경제적 정의에 대한 투자를 반영한 조직적 우선순위를 변경합니다.

SEIU 로컬 2015으로서, 인종 경계를 넘어서 결속이란 유색인종 사이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속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; 우리는 인종 단체 전체가 나누는 미래로 인해 행동으로 이전하는 상호적 헌신을 공유합니다;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가정, 문화적 및 인종적 역사를 배경으로 한 서로의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노력합니다.

그리고 우리는 절대 흑인, 갈색, 아시아계 및 태평양 제도, 라틴계,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의 인종적 정의를 달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정의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